현직자 특강 소감문

컴퓨터공학과 2학년 20191125 박형민

장비 sw개발자 직무특강을 통해 다양한 개발분야에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 안보이는 정보 처리 개발을 하는 백엔드 개발 데이터 처리개발을 하는 데이터 개발 하드웨어개발을 하는 임베디드 개발 보안 개발을 하는 보안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분야들을 예시로 알아보면 네이버에 로그인 한다고 하였을 때 먼저 네이버의 화면 단 로그인 창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한다고 하면 백엔드 서버에서 아이디와 비번을 제대로 입력하였는지 검사를 하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넘어와 로그인에 성공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로그인한 시간이 저장되어 쌓여 있는데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분석하는 것이 데이터 부분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실행되게 하기위해 하드웨어와 브라우저 간의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임베디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각각의 데이터 전송이나 서버가 해킹이 되지 않게 하는 보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서 공부 해야 하는 프로그래밍 지식은 프론트엔드 부분에서는 크게 4가지로 웹, 앱, PC, 게임 등이 있습니다. 웹은 화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화면의 뼈대를 잡아주는 HTML, 뼈대를 꾸며주는 CSS, 동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자바스크립트 등 대표적인 3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앱에서는 안드로이드 개발에서는 코틀린, 자바 언어를 사용하고 IOS개발은 스위포트, 오브젝티브 C를 사용합니다. 게임 개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C#과 C++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나와는 어떤 분야가 맞을 것인가는 백문이불여일타 그쪽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일을 해보면서 적성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를 통하여 개발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한 분야에서도 각각의 공부 해야 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부 해야 되는 것이 많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을 직접 만들고 체험해보면서 적성분야를 찾아 공부를 시작하면 좋다는 것을 알고 제가 무작정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얼마나 적성이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